

북한개발소식

2022 JUN

06

통권 200호

이달의 주제

북한개발소식 200호 발행의
의의와 북한선교콘텐츠사역

특집 좌담회

북한개발소식 독자와의 만남

북한뉴스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다채로운 교계 통일선교행사 열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2 JUN



이달의 주제 :

북한개발소식 200호 발행의 의의와 북한선교콘텐츠사역

- 권두언 01** 북한개발소식 200호 발행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 칼럼_1 03**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_ 월간 북한개발소식 200호를 맞이하며
- 칼럼_2 12** 유춘환 _ 선교방송인의 마이크 앞에서의 기도
- 칼럼_3 16** 김광석 _ 문서와 콘텐츠를 통한 북한선교와 통일민 목회 현장 사료(史料)
- 특집 좌담회 21** 북한개발소식 독자와의 만남
- 북한뉴스 35**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다채로운 교계 통일선교행사 열려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오픈도어선교회의 월간북한개발소식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외



권두언

북한개발소식 200호 발행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김 성 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북한개발소식이 2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 년 동안 북한선교라는 주제로 소식지가 발행되었습니다. 모두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제별로 북한을 선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전문 연구지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요, 인도하심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독실한 신자들로서 수많은 필자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북한개발소식에 글을 실어 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해 한국 오픈도어선교회의 모든 이사, 간사, 후원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것에 실제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관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관료들과 주민들의 모든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세계관도 공적인 영역과 비 공적인 영역이 함께 결속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통치기재로서 창출하는 각종 이념과 정책과 실천지침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행동요인과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와 거의 30여 년이 넘게 연결된 북한 내부의 지하교회와 교인들의 판단과 성찰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화하여 객관적인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몇 번의 해킹 시도를 통해 여러 글을 탈취한 흔적을 알고 있기에 북한 내부의 교인들이 노출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개발소식은 앞으로 현장 경험이 있으며 전

월간 북한개발소식 200호를 맞이하며

-지난 발자취와 더 나은 북한선교콘텐츠로의 고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문성도 갖춘 연구원들을 더욱 보강할 것입니다. 통일되기 전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북한교회와 교인들을 잘못되게 인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북한의 모든 것에 올바른 지식과 소식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기준으로 하여 복음주의적 신학과 신앙의 관점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가 참고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가 본 개발지를 통해서 연구해 왔던 것은 현실 문제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정보전달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가치판단이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하며, 북한교회와 교인들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하려고 합니다. 혼란 없이 통일시대를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회와 교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통일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논하려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대량살상, 무기개발 시도는 한반도를 더욱 긴장하게 합니다. 미국 및 유엔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며, 예측불허의 남북 간의 충돌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교회와 교인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상황도 계속 주시하며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선교회의 주요 과업입니다. 북한개발소식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본 선교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는 주님의 지상 대 명령이며 회피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북한개발소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에 더욱 성숙하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

1. 북한개발소식의 발행 목적과 의의

북한개발소식이 22년 6월에 200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잡지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개발소식은 북한 선교 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북한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정 선교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일종의 선교 지역 연구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의 주요 선교지역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강한 지역이며(Resist Belt),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Yellow Window), 토착종교의 근본주의와 원리주의가 강한 지역,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이 민감한 지역입니다¹. 이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 현장에 대한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교 지역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가 충분히 유입되어야 합니다. 마민호 한동대 교수는 “선교 지역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속적인 데이터와 정보의 유입”이라고 지적하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 리서치를 수행하는 리서치 선교사나 선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선교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지식과 정보의 생산을 넘어 그것이 관리되고 공유되어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² 장훈태 백석대 교수는 선교를 위한 지정학(geopolitics)적 이해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60억의 인구가 같은 지구 안에 살고 있

¹ 마민호 (2014), “한국 선교에서 지역 연구의 역사와 발전 과정”, 신앙과 학문 20(1), p.41.

² 위의 글, pp. 56-68.

라도, 각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역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러한 점들이 선교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지역학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미시적 현상에 대한 몰두를 넘어 넓은 범위의 또는 세계적 범위에서의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³

장훈태 교수는 선교지정학에서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할 부분으로 “역사, 지리와 경제, 부족과 공동체, 정치와 경제, 신생산업과 사회, 종교인류학과 종교, 도시화율과 교육, 식량과 빈곤, 개발과 일상생활” 등을 언급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 등과 연관된 선진국들의 국가정책 및 세계적 추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선교 대상자들의 삶의 맥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⁴

북한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을 가진 지역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접근이 대단히 제한되는 매우 어려운 선교지역입니다. 따라서 북한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 현장 지역의 연관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과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이슈메이커로서 복잡한 국가 간의 관계 속에 상당히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북한 선교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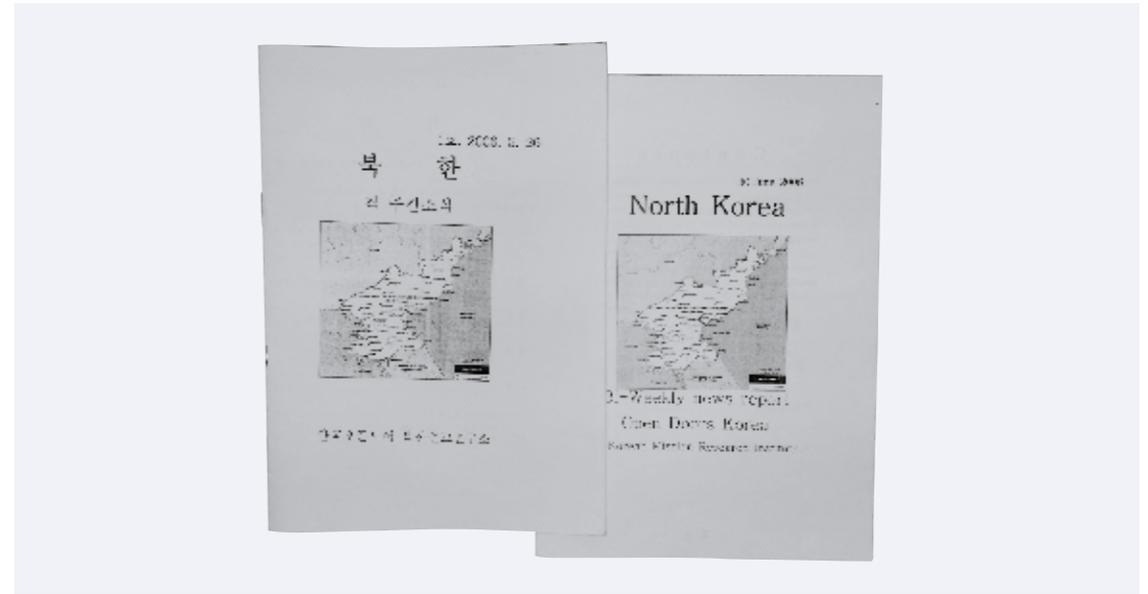
접적인 접근이 아닌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된 지정학적 추세와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북한 선교 현장에 만연한 보안 위험 등으로 인해 선교사들 간에도 정보 교류는 매우 제한되며 일선 교회 입장에서는 일반 뉴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여러 정보는 접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실제 선교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 깊이 있는 접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개발소식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 선교와 관련하여 때로는 미시적인, 때로는 거시적이고 지정학적인 주제들에 대해 시기별로 가능한 수준에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교회를 비롯한 북한 선교 참여 기관 및 사역자들에게 공유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여러 미흡한 점과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북한 선교와 관련된 선교 지역 연구와 정보 교류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북한개발소식의 발자취

소책자 시기

월간 북한개발소식은 2006년 5월 26일 “북한”이라는 이름의 격주간 소식지로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교수(현 오픈도어이사장)가 개인적으로 북한 뉴스를 요약하여 북한 선교 후원자들에게 간헐적으로 제공하던 것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당



〈북한개발소식 1호 (06년 5월 26일) 한글판과 3호 (06년 6월 30일) 영문판〉

시 잡지는 작은 소책자로 구성되어 겉표지 포함 12면 분량이었는데, 그 중 10면에 걸쳐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인권, 정치 등의 주제와 관련한 뉴스 브리핑과 그에 대한 기도제목 소개로 구성되었고 뒷 표지에 북한의 교회, 기독교소식을 전하며 북한선교 관련 기도제목을 제공하였습니다.

발간호로부터 7호까지 북한뉴스를 브리핑하고 기도제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지만 8호부터는 “북한사역 개발보고서”로 정식 개편하고 머리말과 탈북수기 코너가 추가되었습니다. 9호부터는 ‘탈북수기’ 코너와 별개로 ‘북한에서 온 편지’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본 선교회와 연결된 북한의 성도들로부터 온 소식을 소개하였습니다. 18호부터는 정식으로 오픈도어선교회의 로고, 사무실주소, 연락처, 후원계좌가

들어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의 공식적인 회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시기는 김성태 교수 개인이 주도하고 뜻 있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책자가 제작되던 상황이어서 구성이 자주 변화되기도 하였고 자원봉사학생의 실수로 14호가 두 번 발행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주마다 15-20개의 북한뉴스와 10개 내외의 내실 있는 기도제목들을 제공하고 8호부터는 머리말의 형태로 북한선교의 각 영역에 대한 본 선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등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식 인쇄물 전환 시기(2007년 8월호 이후)

24호(2007년 8월호)부터는 “북한월간개발소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격주간지에서 월간지로 출판주기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3 장훈태 (2021), “세계선교와 지정학”, 복음과 선교 54, pp. 311-315.

4 위의 글, pp. 336-339.

까지는 다소 조약한 소책자였다면 24호부터는 정식 출판사를 통해 B5 판형, 겉표지 전면칼라, 표지 제외 16페이지의 정식 인쇄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소식’ 혹은 ‘교회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보안 처리된 선교현장의 사역소식이 정리되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별도로 뒷 표지 겉면에 “북한 사역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교현장을 위한 기도제목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 구성상의 주요 변화로는 외부필진 2인의 칼럼이 함께 개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 및 북한선교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2-3명의 외부전문가 필진의 글을 소개하는 이러한 포맷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처음 24호의 필진은 심주일 목사(당시 전도사)와 강철호 목사(당시 전도사)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고 25호는 신호숙 박사(당시 조명숙 교감(여명학교))께서 글을 써 주셨습니다. 26호 이후로는 가능한 탈북민 출신과 남한출신필진이 각각 하나의 칼럼을 다루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잡지의 분량은 20면-28면을 오가다가 38호 이후부터는 주로 28면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당시 발행한 호의 구성에서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면 보수적 의견과 진보적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양 측면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문제 (40호, 정종훈, 북한의 인권문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정베드로,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역할과 기도)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39호, 최은상,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강철호, 한국교회와 통일준비; 48호 남기업, 공정국가: 성경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체제대안, 박창수, 희년 통일 경제와 한국교회, 이애란, 통일비용 논의에 대한 소고) 등의 주제를 다룬 호에서는 각각 진보, 보수로 구분될 수 있는 의견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 이를테면 로버트박 입북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김정일 사망 등의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2008년-2012년)에는 필진의 폭이 그리 넓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꼽자면 아직 잡지 발행 초기단계에서 검증된 필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던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심주일 목사, 오일환 박사, 유석렬 박사, 안찬일 박사 등의 필진께서 여러 글로 수고해주셨습니다.

분량-내용 확충시기 (2011년 3월 이후)

2011년-2012년에는 책자 구성의 소소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북한뉴스 브리핑에 국내 북한선교, 통일선교 관련 뉴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도제목 코너에도 반영하여 북한선교와 통일선교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제목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소식(북한뉴스브리핑) 코너에서는 주빌리통일구국기도운동,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교계 북한선교-통일운동 기관들의 소식도 함께 전하였으며, 각 교



〈북한개발소식 24호 (07년 8월), 111호 (15년 1월), 199호 (22년 5월)〉

단의 북한선교모임이나 세미나 관련 소식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을 위한 기도제목 중에는 특별히 북한선교와 관련된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구속 및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제목이 오랜기간 나누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선교사(Kenneth Bae, 2012년 11월 - 2014년 11월), 그리고 중국에서 구속되었던 피터 가렛 선교사(Kevin Garrett, 2014년 4월-2016년 5월 중국 수감)에 대한 구명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뒷표지의 북한기도제목 코너를 통해 이분들을 위한 기도제목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한 구명운동과 참여방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짧은 권두언 이후 본 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의 칼럼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던 구성이 바뀌어서 2012년 8월(82

호)부터는 연구소 명의의 권두칼럼이 메인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북한개발소식에서는 그 달의 주제에 대한 6-8쪽 분량의 분석이 보고서의 형식을 따라 제시되며 해당 글의 결론부분이 여타 잡지의 권두언 역할을 대신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구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주제와 관련된 도서와 자료들(Bibliography)을 소개하며 동시에 주요 도서에 대한 서평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6월(92호)부터는 소식지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명칭은 “북한월간개발소식”이었는데 이는 영문명칭 North Korea Monthly Development Brief를 기계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월간지의 우리말 명칭에 “월간”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유관지목사의 지적

을 받아들여 명칭을 “월간북한개발소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잡지의 지면도 이전에 24-32면을 오가던 것이 이 시기에 32면으로 정착됩니다.

분량-내용 확충시기2 (2014년 11월 이후)

2014년 말부터 월간북한개발소식은 기존의 큰 틀은 이어가면서 좀 더 풍성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발전적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종종 특집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분단 70년 기획특집으로 유관지 목사의 “신 북녘기행”이 연재되었습니다. 이 특집은 이후 대한기독교서회에 의해 2018년 “북녘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조중국경 단기선교여행을 주제로 기획특집을 진행하여 단기선교여행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통일을 준비하며”라는 기획특집 코너를 통해 강동완, 양승원, 하광민, 최용준, 강디모데 등 교계와 학계의 주요 인물들의 통일비전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동향과 선교현장의 변화에 따른 주제 선정 및 선교적 접근을 취하는 구성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초의 경우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지수에 맞춰 북한의 박해 동향에 대한 내용이 해마다 업데이트되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신년사나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새해 정책 전망과 이에 대한 선교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전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병로, 오일환, 문성묵, 최경희 등 학계의 기독교 인사들의 분석을 제공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 미중갈등과 사드사태로 인한 선교현장의 혼란, 이례적이었던 북미 정상회담, 코로나 사태와 국경 봉쇄 등 굵직한 이슈들을 추적하며 관련 현안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내용 외에도 선교 대상자의 이해를 위한 관련 연구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정과 다음세대, 정보통신 기술 발달, 장마당 경제 및 주민생활, 국내 탈북민 사역,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문제, 선교현장의 정세와 보안이슈, 조선족 교회 등 다양한 주제들이 북한개발소식을 통해 다루어졌습니다.

3. 북한 선교 콘텐츠 사역과 북한개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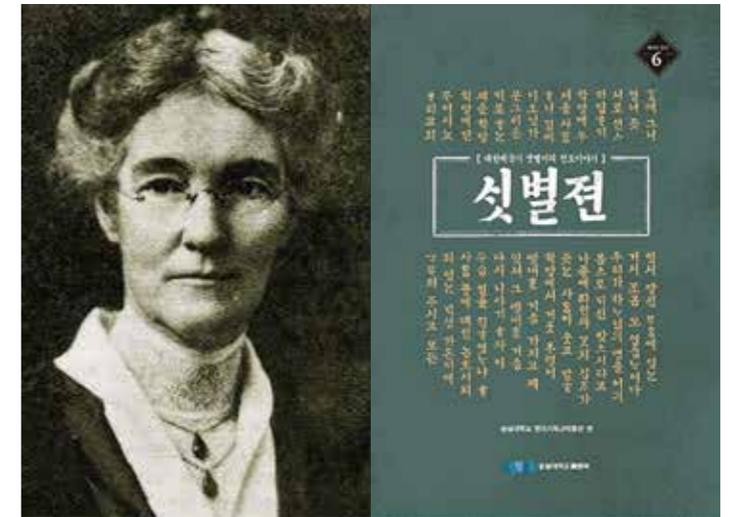
초기 한국 기독교의 콘텐츠 사역의 교훈과 북한선교에의 적용

현재 북한개발소식은 북한 선교와 관련된 또는 선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한 내용을 선교적 관점에서 풀어낸다는 점에서 북한개발소식은 일종의 문서선교사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주로 남한 출

신이거나 남한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북한 선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에 직접 배부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개발소식이 북한의 독자들에게도 나눠질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시기와 대상에 맞는 선교 정보와 소식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 문서를 비롯한 콘텐츠 사역이라하면 주로 직접적으로 성경이나 전도지, 또는 예수 영화 등 복음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출판, 배부하는 활동이 연상됩니다. 그러나 콘텐츠 사역이 꼭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반(反)기독교적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알리는 콘텐츠도 필요하고, 또 기독교인들의 신앙성장과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성취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의 대중들과 신자들에게 효과적인 선교와 신앙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사역자를 꼽으라면 송실학교를 세웠던 윌리엄 베어드(한국명 배위량, 1862~1931)의 아내 애니 베어드(한국명 안애리, 1864~1916) 선교사를 들 수 있습니



〈애니 베어드(한국명 안애리, 1864~1916) 선교사와 송실대에서 출간한 셋별전〉

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한국에 온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한글 소설 〈셋별전〉을 창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신앙의 황무지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셋별이라는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문답체 소설 형식을 취해 독자들이 쉽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전도지의 일종입니다. 이 소설은 일방적인 교리의 설명이 아닌 독자들이 경험할 만한 상황을 제시하고 공감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희생과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⁵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그 후에도 『장자로 인전』, 『고영규전』 등의 한글 소설을 통해 조선의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화 된 콘텐츠를 개발했고, 다수의 찬송가를 번역하고 편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5 허순우 (2021), “19세기 말 애니 베어드의 문서선교에 대한 관심과 〈셋별전〉”, 한국고전연구 52, pp. 203~234.



〈아이생활 31년 11월호〉

일반 노래집인 『창가집』을 편집·출판하여 음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현지화 된 선교 콘텐츠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선교사들과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의 콘텐츠 사역은 복음 전도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도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아동잡지 ‘아이생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생활’은 1926년 3월에 창간되어 1944년 1월까지 18년간 지속적으로 발행된 한국아동문학사에서 가장 오랜기간 발행된 잡지입니다. 성경이야기 및 한글 교육과

애국심 고취, 흥미로운 과학에 대한 소개, 그 외에 한글 동화나 조선의 위인 소개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 잡지는 비록 1940년대에 가서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잃어버리고 친일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안타깝지만 그 전까지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신앙과 애국, 윤리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⁶ 특히 당시 1920년대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크게 발흥하면서 사회주의의 무신론과 유물론적 세계관에 많은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은 반기독교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⁷, 이런 맥락에서 ‘아이생활’은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독교 변증/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선교 영역에서도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 보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북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신앙자료와 작품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에 만연한 무신론적, 유물론적 가치관에 대응하여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필요가 큼니다. 최근 북한이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많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람들이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이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4387>> (검색일: 22년 5월 24일).

7 박영지 (2021), “아이생활의 이념적 지향성 연구 - 1920년대 사회주의 및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근대서지 24, pp. 625-665.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와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소위 맘몬주의라고도 불리는 물질주의에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 직간접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 복음화를 생각할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게다가 현재 남한의 문화 기조도 반종교적이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한의 일반적인 미디어가 오히려 북한 복음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 사람들과 좀 더 자유롭게 접촉하고 교류하게 될 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형태로 복음의 메시지와 성경적 세계관을 소개할 수 있는 읽을거리, 볼거리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장기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어느 선교 현장이든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선교 대상자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 현지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 유지와 성장을 위한 콘텐츠, 또 선교에 참여하는 사역자 및 교회와 기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한 대면 접촉의 많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일찍부터 라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사역이 시도되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콘텐츠, 선교 콘텐츠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당국의 극심한 통제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성경책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신앙 서적들, 예수 영화를 비롯한 영상 매체들, 그리고 오랜 기간 꾸준히 전파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각종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 개발 소식은 선교에 필요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고 소통하게 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때, 통일 때가 다가올 것을 대비하며 다양한 선교 콘텐츠가 개발되길 바랍니다. 북한개발소식도 선교 현장의 필요에 발맞춘 잡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다짐하며 독자 여러분의 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선교방송인의 마이크 앞에서의 기도

유 춘 환 (극동방송 '통일광장' 진행자)

오픈도어로부터 '라디오 선교사역을 오래한 입장에서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고민과 노력'에 대해 나눠 달라는 부탁이 왔다. 새삼 돌아보니 극동방송에서 평직원으로 시작해서 정년퇴임 후 10년이 넘도록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있으니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라디오선교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방송에 이어 우리나라 민간방송 두 번째로 1956년에 세워진 극동방송은 동서 냉전 시대에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공산권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전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이다.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북한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북한에 대한 이해부터 돌아보게 된다.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민족 최대 동족

상잔의 비극인 참혹한 전쟁을 겪었지만 워낙 어린 시절이라 전쟁에 대해 남아있는 기억은 없다. 다만 초중고시절에는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았다. 그 당시 길거리 전봇대나 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반공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북한을 상징하는 빨 난 도깨비가 호시탐탐 남한을 삼키려고 마수의 손길을 뻗고 있는 그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북한은 무서운 존재들이 살고 있는, 알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 내가 극동방송에 입사했고, 공산권과 북한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제작해야 할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복음의 메아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남과 북이 하나되어' 등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 나가야 할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전해야 할 방

송 내용과 목적은 분명하고 명료했다.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방송이니 방송내용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북한 대상 프로그램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과연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들을까?' '무슨 내용에 관심을 가질까?'에 이르기까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한을 비롯한 자유세계 소식을 궁금해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외 소식으로 문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철저히 통제된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사는 나라 안 소식도 모르고 있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주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고 규정을 거쳐 읽을 수 있는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정부에 의해 이미 배포된 것이라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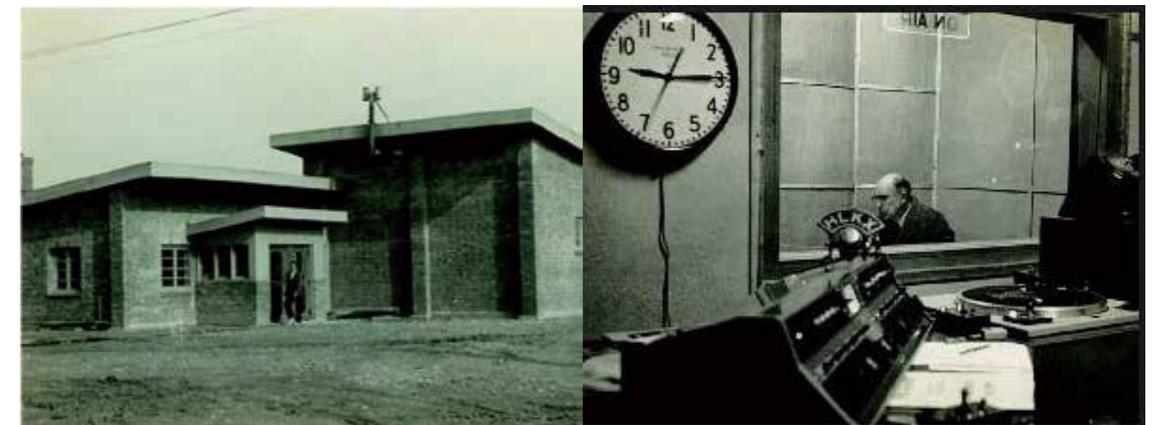
방송언어도 문제였다. 북한에서 쓰는 어휘와 표현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내 언론사에서 펴낸 북한용어 사전을 참고하기도 했다. 북한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지금 생각하

면 우스운 일이지만 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현희 씨 진행 프로 PD이었음에도 보호관 허락 없는 개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때라 진행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느낄 때면 눈물을 흘립니다'라는 책 제목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북한 사람도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나?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북한소식들 늘 어둡고 가슴 놀라게 하는 소식들뿐이었다. 온 국민을 긴장시키는 무력 도발, 무시무시한 공개처형, 대량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굶주림 등등... 그럴수록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은 더해갔다. 2,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일생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함 속에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쉽 없이 전해지도록 노력했다.

탈북민들을 통한 변화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은 고난



<첫 극동방송사역지였던 학익동 극동방송사옥과 첫 방송스튜디오 모습 (극동방송 블로그)>

의 행군 시대를 거쳐 우리 곁으로 온 탈북민을 통해서였다. 탈북민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 회에 나누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들어보니 전혀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생활습관의 일부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방송 사역의 열매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다.

라디오로 숨죽이며 외부세계 소식을 듣다가 극동방송도 듣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쁜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심지어는 같은 마을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당국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는 놀라운 증언도 나왔다. 먼저 탈북한 아버지가 참여한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북에서 들은 딸이 이곳에 와서 복음 통일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례도 생겼다.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곁으로 온 것은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북한 내부 사정을 밝혀준 것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떠난 자신의 고향을 향해 직접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을 통해 듣는 소식은 남다르게 신뢰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있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라는 내용의 방송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이다. 신앙을 가지게 된 탈북민들이 방송에서 고향의 가족들을 향해 “내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니 그 날까지 살아있어 달라”는 목메이는 말을 남길 때, 우리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전해져온다.

이 기회에 한 가지, 탈북민들이 증언이나 간증을 할 때 탈북민 전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늘 염두에 두고 과장이나 거짓은 당연히 삼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선교를 위해 오래 헌신한 분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는 돌아봐야 할 아쉬운 이야기다.

복음통일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분단은 1,000년만이라고 한다...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으로 왕조는 바뀌어도 분단은 없었다. 그러던 우리가 70년 여 년 전부터 세계 유일의 분단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통일... 그것도 복음 통일!!

이를 위해 극동방송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북한 선교 일선에 서있다.

복음통일을 구체적으로 꿈꾸고 나누기 위해 얼마 전 ‘통일광장’ 프로를 마련했다. 통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 남북한 주민 모두의 관심과 과제로 ‘통일’을 주제로 대화하기 위한 시간이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적으면 왜 그런지... 많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힘써야 하는지...

폭넓은 대화는 물론 통일을 위한 기도와 특히 북한 권력층에게 당부하고픈 말도 듣는다. 김정인을 비롯해 북한 권력층들이 권력유지만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며 폐쇄정치를 하지 말고 역사는 필히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후손 대대가 칭송할 수 있는 선한 정치를 해

달라는 간절한 당부도 남긴다.

‘남과 북이 하나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말했다.

“청취자들에게 통일준비와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말하는 자네는 생활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질문을 계기로 ‘또 하나의 사명’ 운동 에이미션(A-Mission, another mission)을 시작하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기본 사명’이 있지만 분단시대 남북의 사람들에게는 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 일을 위해 힘쓰자는 운동이다.

그렇다. 통일은 정부나 그 일에 전념하는 그 어느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준비하고 해야 할 일’ 이다. 그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늘 궁금해 한 북한에서의 삶을 경험한 3만 5천명의 탈북민을 미리 온 ‘통일민’으로 우리 곁에 보내셨다. 목숨 건 상상 못할 어려운 역경을 거쳐서... 이 분들을 가까이 하며 북한을 배우고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 되는 노력을 하는 것..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일준비가 있을까!?

어느 날 북한 회령에서 온 자매가 말했다. “통일되면 북한 동해안으로 우리 함께 여행가요...” 그 말이 그 동안 생각해 왔던 ‘통일에 대한 정의’나 ‘통일 후의 모습’ 그 어느 것보다 정겹고 가까운 그림으로 남아 있다. 남북의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남북 어디든 함께 여행하는...

북한은 뿔난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사는 곳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랑과 눈물이 있는 다정다

감한 형제자매들이 사는 곳이다.

소망과 기도

극동방송과 한국교회는 북한 일반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은 오늘을 사는 이 땅의 신앙인과 한국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사명’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크고 작게 실천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이러한 소원으로 북한에서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른 새벽(토 오전 4:00-4:30) 편성된 ‘통일광장’을 위해 마이크 앞에 출연자와 앉는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린다.

“주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

시편 85편 고라 자손의 기도가 떠오른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임을 믿는다.

살아 계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날을 허락해 주소서! 🙏

문서와 콘텐츠를 통한 북한선교와 통일민 목회 현장 사료(史料)

김 광 석 목사 (복음문화교회)

I. 서론

북한선교와 통일민¹ 목회는 문서와 콘텐츠가 동반되어야 한다. 여러 명이 대상을 직접 만나서 복음전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문서와 콘텐츠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 글은 북한선교와 통일민 목회 현장에 필요한 문서와 콘텐츠 사역에 대한 연구 경험과 고민을 기술한다.

II. 북한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문서와 콘텐츠 사역의 필요성

북한선교에서 문서와 콘텐츠는 영의 양식이다. 문서사역은 성경과 신앙성장을 위한 소책자, 간증, 기록, 선교보고서, 교회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필요하다. 콘텐츠도 찬양, 영화, 동영상, 성경만화, 성경, 반주 어플 등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 김광석, “남북한주민의 통일인식 통합을 도모하는 북한선교정책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6.

1. 북한에서 사용되는 문서와 콘텐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없는 북한에서 문서와 콘텐츠는 복음전도의 직접적인 매개체로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북한에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문서와 콘텐츠는 복음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복음의 객관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행하심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전하는 것이다.

1) 문서와 콘텐츠의 역할

한 사람의 체험이나 증언보다 문서와 콘텐츠를 통한 복음의 객관화는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한다. 한 사람이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북한선교의 현장에서 문서와 콘텐츠는 말씀 전도를 위한 동역자이며 사역자이다.

2) 특별한 문서와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필요성

북한선교의 현장에서 사용할 문서와 콘텐츠는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

다. 예로 간결하게 잘 정리된 4영리를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고 명료하게 전달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서사역이다.

찬양도 북한성도들이 잘 부르는 곡을 선정하여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보낼 수 있다. 예로 북한에서 금지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버지’로 바꾸어 음반을 만들 수 있다.

북한성도가 밭에서 일을 하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²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보통 가족과 함께 일하거나 복음전도의 대상과 함께 일할 때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감동을 공유한다. 북한에서 사용이 금지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어 부르면 처음 듣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찬송을 따라 부를 수 있다.

북한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함께 한다. 예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³은 북한성도들이 모여서 늘 부르던 찬양이다. 필자가 북한을 탈출할 때 부부가 함께 가사를 다 기억 할 정도로 북한에서 많이 들었고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으로 한국에 왔을 당시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간증하며 불렀다.

이외에도 북한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찬송가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⁴, “주님께 귀한

2 새찬송가 580 (통 371)

3 314 (통 511)

4 312 (통 341)



〈북한에서 유행하는 노트북과 영상재생기 (데일리 NK)〉

것 드려”⁵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을 선택하여 북한성도를 위한 찬양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다.

2. 북한선교를 위한 문서와 콘텐츠 전달과 활용

찬양과 복음의 핵심교리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sd카드나 휴대폰에 담아 보내는 미디어 사역이 필요하다. 찬양과 동영상을 전달하는 미디어 사역은 복음문화를 빠르게 전파한다. 복음을 전할 때 섬김을 통한 헌신과 말씀 선포의 중요한 요소도 있지만 상대에 따라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서신과 찬양,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서와 콘텐츠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알 수 있다. 상대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복음의 핵심을 얼마나 받았는지 문서와 콘텐츠를 공유하며 알 수 있다. 상대를 알면 적합한 말씀의 서신과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

5 575 (통 302)

역에서 문서와 콘텐츠는 복음전도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북한선교를 위한 문서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제언

북한선교의 현장에 사용할 문서와 콘텐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받을 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서 죄를 사하시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본을 보여주셨고 대제사장이 죄인의 짐을 대신 지는 본을 보이셨으며 선지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의 본을 실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세상의 권력과 우상의 죄악이 드러난다. 노예주가 자신을 위하여 노예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며 사랑이 아님을 알게 된다. 북한선교에 사용할 문서나 콘텐츠에서 권력의 우상을 고발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정보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III. 북한선교 현장의 미디어 사역

중국이나 제3국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선교는 미디어를 통하여 문서와 콘텐츠를

사용한다. 필자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성경통독을 할 때 현장에는 성경책만 있었다.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반주기와 녹음기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를 통하여 화상채팅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중국내 선교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나 제3국에 있는 선교 현장에서 문서 사역은 성경필사이다. 자필로 성경을 쓰도록 하는 문서 사역과 성경공부 교재를 통한 화상채팅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미디어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설교영상을 찍어 보낼 수 있다. 북한선교의 현장이 미디어를 통한 문서와 콘텐츠사역으로 바뀌었다. 북한도 미디어 사역이 가능한 날이 곧 올 것이다. 지금은 문서와 콘텐츠만 보내지만 이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미디어 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

IV. 통일민 목회 현장에 필요한 문서와 콘텐츠 사역

통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통일민은 기존에 '새터민'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외국인 이주민으로 혼돈되고 집단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에 부정적이며 이로서 북한선교를 하는 교회마다 북한에서 온 '통일민'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논의한다.

'통일민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한 의미보다 정상적인 사회의 이탈자에 대한

느낌을 주며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어려운 과거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으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로 하여 필자는 사회통합과 통일에 기여하며 미래 지향적인 집단명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통일민'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하는 집단명으로 제안한다. 현재 한국국적의 통일민은 약 34,000여명이 된다. 통일민이 분단선을 넘어 한국에 찾아오면서 한국사회는 북한주민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게 되고 통일 논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한다. 이로서 이 집단의 이름을 통일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품은 '통일민'으로 부르는 것이 사회통합과 통일을 위해 긍정적이다. 한국에 찾아온 탈북민을 통일민으로 부르면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며 통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통일민이라고 부르는 입장에서도 탈북민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없고 이미 사회통합을 이룬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인식된다.

필자는 통일민과 탈북민을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통일민'으로 부르고 아직 제3국에 있는 사람을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제3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탈북난민'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이미 한국에 와서 정착한지 오래된 통일민을 실향민으로 부르고 남북실향민 만남도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다.

필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논



문 "남북한주민의 통일의식 통합을 도모하는 북한선교정책 연구"에서 '통일민'과 '탈북민', '탈북난민'에 대한 용어정리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필자가 목회하는 복음문화교회에서 '통일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미와 사명을 함께 인식한다. 이로서 통일민에 대한 용어 정리는 중요한 문서사역이 된다.

1. 통일민 목회를 위한 문서와 콘텐츠

통일민 목회 현장에도 특성화된 문서와 콘텐츠 사역이 필요하다. 목회 경험상 통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 교재나 신앙교육을 위한 양육교재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통일민 목회자들이 "탈북민 새가족 양육교재"를 출판했다.

통일민 성도와 기존 교회의 성도가 완전하신 주님의 몸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훈련과 같은 한국교회의 일반화된 신앙교육도

북한개발소식 독자와의 만남

- 북한개발소식 200회 특집 좌담회

북한개발소식 200회를 맞아 북한개발소식을 꾸준히 구독하시는 독자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개발소식과의 인연에서부터 앞으로의 방향성과 북한관련 콘텐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애정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좌담회 참여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 유관지 목사 (북녘교회연구원)
- 오성훈 목사 (북한과 열방을 위한 기도네트워크 PN4N)
- 백명숙 박사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 임사라 자매 (민들레 가족상담센터 전문상담사,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 저자)
- 사역자 A, 다니엘 간사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오늘 북한개발소식 200호 기념 좌담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시작을 열어주신 오성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관지 목사

유관지 목사입니다. 1974년에 극동방송 PD로 입사한 것이 통일 선교와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일흔아홉, 내년에는 여든이 됩니다. 이제 목사로서는 은퇴를 하고 지금은 ‘북녘교회연구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일은 예

전에 북녘의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꽃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교회가 있던 자리, 이곳은 이러한 교회가 있었던 곳, 이렇게 안내 표지석을 하나씩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라는 것이 우선은 예배 공동체지만 옛날에는 주민들의 생활 공동체였어요. 민족 운동도 교회 중심으로 이루졌고 교육, 의료도 그러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교회가 주민센터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각 지역의 교회를 확인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제일 큰 애로사항은 각 교회의 위치 파악입니다. 북

필요하다. 복음문화교회는 제자훈련과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경영’ 성경공부를 남북의 성도가 함께 한다. 출애굽기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십계’와 같은 영화를 함께 감상한다. 영화는 문서와 다르게 묘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용을 관통하는 안내가 필요하다.

2. 통일민 목회를 위한 문서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제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정리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질화된 문화와 사회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통일민이 새신자로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아야 한다. 북한선교에서 제언한 것과 같이 통일민 복음전도를 위한 문서나 콘텐츠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을 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형성된 사랑을 안다. 또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경험되는 형제의 사랑을 알고 친구와 이웃 간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나 대가 없는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면 이미 경험한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을 알게 된다.

예수의 사랑을 알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 믿음이 생기며 삶의 소망이 새롭게 형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 내용의 서신과 찬양과 영상이 필요하다. 전도를 위한 문서와 콘텐츠는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

할 수 있게 하는 복음적인 내용을 필요로 한다.

V. 마무리

북한선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을 알면 회심하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 할 때 복음이 전파된다.

북한선교에서 문서와 콘텐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요리한 영의 양식과 같다. 북한선교와 통일민 목회 현장에서 객관성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문서와 콘텐츠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의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문서와 콘텐츠를 기도하며 준비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계명에 순종할 때 복음의 콘텐츠가 의미 있다. 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복음전도자가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와 콘텐츠와 하나가 될 때 말씀의 생명력을 잘 전할 수 있다. 🙏



〈기도로 시작한 북한개발소식 200회 기념 좌담회〉

한이 1952년에 행정구역 기본 체계를 바꿔놨거든요. 여하튼 이 일을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은데 할 일이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그런 모든 걸 다 넘어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백명숙 박사

저는 백명숙 박사입니다. 박사 된 지 몇 개월도 안된 병아리 박사이고요. 저는 2009년도에 북방선교방송 (TWR Korea)에 입사해서 신학 방송 PD로 북한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던 중,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와 정책을 구성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성훈 목사님의 소개로 송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 석박사 과정을 알게 되었고, 북한 장마당에 대해 신제도주

의 관점에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장을 통한 북한연구에 흥미가 생겨서 박사과정도 입학하여 지난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보는 여러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시장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저는 제도학의 관점에서 북한시장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장을 통해 북한 땅에 일하실 것이 있다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선배님들 계신 자리에 제가 초청 많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도와 더불어 정확한 대북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실천하고 싶습니다.

임사라 자매

저는 탈북민으로서 이제 남한에 온 지 올해 7년 차입니다. 지금은 민들레 가족 상담 센터에서 미술치료사로 또 탈북민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픈도어를 알게 된 덕분에 제 수기도 쓰게 됐고요, 오늘도 오픈도어선교회와 북한개발소식을 통해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성훈 목사

저는 PN4N (The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 the Nations,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오성훈 목사입니다. 2001년부터 저희가 'PN4N 지도 일지'라고 해서 손바닥만 한 16페이지짜리 일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북한 사랑'이 되고 또 '통일 코리아'까지 발전했었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 기도 제목을 22년 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월간지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피말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0호까지 발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개발소식과의 인연

유관지 목사

1980년대 우리나라에 중공 선교, 즉 중국 선교 붐이 일어났을 당시 앞장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 중 하나가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입니다. 특별히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의 '진주 작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경 100만 권을 해변을 통해 전달했던 사

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고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저도 알아보기 위해서 홍콩까지 가서 그 당시 오픈도어 선교회 실무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선교회 이사장이신 김성태 교수님께서 북방선교, 공산권 선교 모임에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월간 북한개발소식은 오픈도어 사역자 A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 청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제가 2009년 7월에 첫 번째로 북한개발소식에 글을 기고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백명숙 박사

저는 북방선교방송(TWRK)에서 신학 방송 간사로 있을 때 그 당시 방송신학 위원장님이 (한국 오픈도어 이사장이신) 김성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오픈도어선교회도 알게 되었고, 북한선교학교 수업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북한개발소식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시의 적절하게 북한 관련 현황이나 이슈를 파악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오픈도어선교회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매년 발표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임사라 자매

저는 한 4년 전 북한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복음 방송 프로그램에 채널로 참여하다가 그곳 PD님 소개로 오픈도어선교회와 북한개발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런 잡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북한개발소식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탈북민인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 분도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성훈 목사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받은 때가 1996년 선교한국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 오픈도어 선교회와 모퉁이돌 선교회가 북한 선교에 양대 축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앞서가고 있는 단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개발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북한을 위한 기도를 월간지를 내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나누다 보니까 정보를 계속 찾게 되거든요. 정보를 찾다가 북한개발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시의적절한 주제를 정하고 잘 정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호와 글

유관지 목사

저는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통한 북방선교 분야를 섬겨왔기 때문인지 2020년 7월 특집 “포스트 코로나 사태와 라디오 선교 사역” 이 기억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접 라디오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했던 특집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백명숙 박사

저는 전에 김병욱 박사님의 글을 북한개발소식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평소 논문을 통해 만났던 북한 연구자들의 글을 북한개발소식에서도 발견할 때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지성을 겸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북한을 품는 신실한 연구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사라 자매

저는 글 뒤편에 매월 실리는 북한을 위한 기도제목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북한을 향한 기도가 너무 간절한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성훈 목사

저는 매월 잘 보고 있고 또 기도 제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북한개발소식에 가장 큰 장점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도 함께 언급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호인 199호 “통일과 북한선교”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라는 개념이 사역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잘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북한개발소식 199호에 실린 글에서 그러한 노력이 느껴졌고,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사역자 A

저는 과거 북한개발소식 제작에 참여하면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한번은 기도 제목을 쓰다가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인שה가 다 된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미 출판된 수백 권의 책자에서 직접 칼로 그 부분을 오려냈었는데 기억에 많이 납니다.

제일 애착이 갔던 주제는 “북한의 이단 문제”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 잡지에서 북한의 이단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단들이 북한 선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신천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보고, 구원파의 무슨 홈페이지 자료도 보고, 심지어 박옥수씨가 하는 선교 관련된 특강파일도 구해서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혹시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어디서 무슨 책을 인쇄해서 중국에서 북한에 무슨 책을 들여보냈다는 북한 사역 관련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일은 고생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한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는데 굉장히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정보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단들의 사역을 저지하는데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개인적으로 제일 보람되고 의미 있었습니다.

다니엘 간사

저의 경우 매년 초에 다루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에 대한 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 선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고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기독교인의

활동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회 자료 외에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과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확실한 사실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북한에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음을 더 알게 되고 남한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곤 합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북한의 마약 실태”와 “중국 조선족 교회와 북한선교” 주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약실태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극적 이슈로만 소비되는 가운데 정작 북한 사람들의 고초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한 것이 안타까웠고, 조선족 교회의 경우 북한 선교의 중요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나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북한개발소식에서 다룰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북한개발소식의 방향성

다니엘

북한개발소식은 북한 선교와 연관된 지역적인 또는 지정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비교적 연구적인 성격의 글 또는 실제 현장의 글을 주로 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잡지가 북한 선교 관련 연구나 자료 개발적인 측면에서 북한 선교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 학술 집단이 아니다 보니 한계점도 있고, 북한 선교 관련 정보 중 현장의 정보들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출판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교



회나 선교 단체 및 선교사 지망생 분들께는 더 많은 북한 선교 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개발소식이 어떤 점을 보강하고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관지 목사

먼저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북한개발소식의 중요성을 잘 인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특수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잡지가 200호까지 발행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지는 않지만 비중 있는 북한 선교 잡지이기 때문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이 일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백명숙 박사

저는 온라인 시대에 인쇄된 책자가 전달되는 것이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책은 시간 될 때 읽게 되는데 카톡이나 메일로 오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많은 온라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출판물을 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사라 자매

저는 같은 탈북민으로서 동질감이 있어서 그런지 북한개발소식에 수록된 탈북민 수기를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사실 탈북민 중에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포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없던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북한개발소식에서는 마음이 건강하고 투명하고 진실한 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잘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성훈 목사

저는 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 잡지를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잡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면 페이지 수도 늘어나야 되겠구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더 발전하고 더 쓰임받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북한선교콘텐츠와 북한개발소식

다니엘 간사

북한개발소식도 어떤 면에서는 북한 선교를 다루는 콘텐츠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북한에 대한 책이나 잡지, 미디어 콘텐츠가 많은데 정보가 넘치다 보니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어떻게 선별하여 받아들일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선교 관련된 콘텐츠가 일반적인 그것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들이 개발되어야 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관지 목사

저는 북한선교 콘텐츠라면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선교에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명숙 박사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도 정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시대여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정보를 얼마나 잘 링크하고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논문만 해도 전 세계에 수많은 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올바른 정보를 잘 찾고 잘 링크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만 해 준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사라 자매

저는 북한에 대한 신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콘텐츠라면 반드시 진실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보면 어떤 채널은 진짜 영상이 말하는 내용이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살아온 그 삶과 거의 똑같은 경험이잖아요. 단지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볼 때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반면 왜곡된 정보를 전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탈북민 유튜브를 볼 때는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 간증을 많이 세우곤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좀 더 분별력 있게 사람을 가려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보다보면 탈북민들의 간증이 일종의 판매 목적의 상품이 되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포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더 나아가서 무리한 포장을 하다보니 왜곡된 정보가 섞이거나 사실이 아닌 각색을 가미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걸 정말 심각한 일거든요. 왜 저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강단에서 저런 이야기를 스스로 없이 하는가? 하고 자세히 들여보면 거짓말하는 그 이면에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가려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알리자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거짓이 섞이면 결국 진실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도움 받을 사람들은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된 이야기 속에 진실이 묻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신앙인으로서, 또 먼저 온 탈북민 선배로서 나중에 온 후배들에게 건강하게 복음도 제대로 전달하고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성훈 목사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짓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이 거짓의 영인데 이 거짓이 북한 선교 영역에도 은연중에 퍼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참됨을 추구하는 콘텐츠, 비록 이것에 손해가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된다고 해도 거짓보다는 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전에 한 북한선교 단체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감추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들어가고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기사나 북한 소식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소식들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인 부분이 있더라도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 입맛에 맞게 각색되기도 하는데, 그런 소식이 선교나 교회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애송이 취급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일부 사실일 수는 있지만 전하는 이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정보나 뉴스는 선교나 통일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진실을 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한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북한 관련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관지 목사

지금 이제 그 ‘진실’ 또는 ‘진심’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10년 전까지는 북한 출입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주로 통일전선부 민족화해협의회에서 나온 참사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진실과 성실은 통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쪽 남에서 간 NGO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든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역자 A

방금 탈북민 중에서 간증에 점점 과장이 심해지거나 포장 및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교 단



체들이나 교회도 책임이 있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사실 어떤 유혹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이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과장스럽게, 좀 은혜롭게 이야기를 나누면 성도들이 더 감동받기 쉽고, 혹이나 의심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대부분 확인이 안되니까요. 그렇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현상을 간접적으로 부채질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어차피 책임은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나쁜 의도는 없었어도 잘해보려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같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관지 목사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월간 북한개발소식이 진실

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통일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잣대 기준점 그런 역할을 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북한개발소식이 일종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통일 선교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간사

귀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실수도 있었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고 글을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특정 정보가 검증이 쉽지 않아 지면에 실어도 될지 아닐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개발소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다니엘 간사

이제 다시 북한개발소식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라든지 “내가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관지 목사

오픈포어 선교회의 특성상 수면 밑에서 주로 활동하고 재정도 넉넉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 볼 때마다 늘 미안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이런 월간 잡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앞으로 끊이지 않고 잘 나오시기만 해도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호를 넘었으니 앞으로 꾸준히 나오리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잡지 중에는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떠오르는 대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 선교와 나” 라고 하는 북한선교 사역자 소개 시리즈나 각 신학 교육기관의 북한 선교 교육을 소개하는 시리즈, 그 외에도 북한 선교를 주제로 한 학위 논문에 대해 저자가 직접 그 의도와 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는 ‘나의 박사 논문을 말한다’라는 코너가 연재가 되고 있는데 북한 선교 분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북한 선교기관 소개 시리즈도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70년이라는 숫자가 저희에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정전 70년을 주제로 한 연간 특집 같은 것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각 교회의 북한 선교 활동도 소개해본다면 개별 교회와의 접촉점을 넓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 보았습니다. 또 요즘 말하는 MZ세대의 젊은 필자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백명숙 박사

저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처음으로 북한 선교를 시작한 교회들을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코너를 통해 소개된 교회는 더 열심히 북한 선교를 하게 될 수 있고, 독자들 과도 상호 소통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박사님께서 계속 북한 장마당 등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연구 내용 중에서 저희 지면을 통해 선교에 관심 있는 독자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을까요?

백명숙

제가 연구하는 장마당(시장)에 관해서 북한개발소식에서도 관련 주제를 종종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시장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셨을 겁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USB도 들어갈 수

있고, 성경도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약하지만 북한시장을 연구하다 보니, 시장을 이토록 크게 확장시키고 통제하는 주체가 북한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북한이 당장 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선교의 주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정직하게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성도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다소 실망스럽고, 은혜롭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요. 북한개발소식에 넣을 수 있는 주제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 간사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관련해서 더 연구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성훈 목사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개척해 가는 데 중요하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김정은이 통치를 하고 나서 북한 사회가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너무 모르거나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금 당장 급변 사태를 통해 무너지고 우리가 통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보다는 현 상황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는데, 우리가 북한이 무조건 나쁘다든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다든지 이렇게만 보고 북한이 무너진 이후의 일만을 생각한다면 당장은 지금 상황이 그저 유지될 뿐이거든요. 이 유지되는 것이 실제로 한국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피해가 오진 않아요. 하지만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사람들을 만나고 돕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북한 체제와 공식 채널을 통해 NGO들도 활동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돕고 간접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고 한 쪽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니엘 간사

저희는 북한 정권을 주요 기독교 박해자로 보기 때문에, 박해받은 성도들을 돕는 단체로서 북한 정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든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북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에 대한 부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많은 기독교 NGO가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과 더 많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정권에 의해 악마화되어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 발을 준비시키는, 앞으

로의 통일과 선교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북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고 그 안에 어떤 선교의 기회들이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역자 A

방금 오성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이든 긍정적 측면이든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기독교 박해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또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 저희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옹고 그름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종종 특정한 정치색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사회 전반에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유관지 목사

그럴 경우에는 여하튼 반응이 있으니까 반갑다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나으니까요.

다니엘 간사

사라 자매님께서 제안하고 싶은 주제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나 사회 적응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탈북민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구요. 그래

서 그런 쪽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필요가 있으신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사라 자매

제가 탈북민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에너지가 엄청 넘쳤어요. 사실은 제가 타인을 상담하기 위해서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 내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면에서 이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부했는데, 하고 나니까 ‘나처럼 힘든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상담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탈북민들을 접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같은 탈북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탈북민들은 이곳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왔지 누구의 권유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에 대해 잘 오픈하지 않구요. 그리고 내면에 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북민들과 대화를 할 때 제일 관계가 힘든 친구들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예요. 내면에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분노와 화가 많은 사람이예요. 피해 의식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어떤 탈북민들은 피해의식이 너무 크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감정 표출을 아무한테나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께 접근하는 것은 같은 탈북민인 저에게도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북한개발소식에서 주제를 다룬다면 탈북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탈북민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심리적 안정과 한국인과의 공동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수의 탈북민이 북한 사회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탈북민이 한국 사람과 한국 사회를 바르게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이상한 행동이나 반응을 하게 만들지요. 이런 탈북민의 모습을 경험한 한국 사람은 탈북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탈북민과 한국인과의 공동체에 대한 주제도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지체로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역에 앞으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북한 개발소식을 통해서도 소개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개발소식을 향한 한 마디

유관지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 북한 개발소식에 제가 1년 동안 북한 지역 교회사를 연재했어요. 평양에서 시작해서 황해북도, 황해남도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루었습니다. 당시는 개성이 특별시가 되기 전이어서 북한이 딱 12개의 각 도와 특별시가 있었거든요. 그 연재 내용을 가지고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북녘교회 이야기”라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표지 디자인이라든가 편집 디자인에 대해 꾸준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잡지에서 맨 앞에 선교회의 북한 선교연구소 명의로 나오는 권두 칼럼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 칼럼이 제일 도움이 큼니다. 그리고 아주 애썼구나 깊이 있게 연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0회에 이르는 내용을 총 목차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은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자료 공유, 자료 활용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명숙 박사

저도 매월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지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고집 있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북한을 바라볼 때 코로나 이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이 우려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하나님 저 땅을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다채로운 교계 통일선교행사 열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6월 6일 현충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주강사로 분단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2022 주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을 일산광림교회에서 개최한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서귀포(2월), 거창(4월), 세종(5월), 안양(9월) 그리고 올해 1월 강릉에서 발족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기도큰모임에 이어 정전협정 69년이 되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애틀형제교회(권준 목사 시무)에서 100여 명의 국내외 지역모임 대표, 참여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제2회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 행사를 가지며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다음세대에게 복음 통일의 꿈을 심고, 통일선교의 주역으로 키우는 '주니어주빌리 청소년통일캠프'를 개최한다.

같은 날 충남 공주시 소재 '애터미 오롯'에서는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가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TMTTC 주최로 개최된다. '고향을 그리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세 마당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탈북민들의 회복과 위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오성훈 목사

200호 맞이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인내와 끈기에 감사드립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성도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역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간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 주시고 북한 개발소식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신 내용들을 잘 귀담아듣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지 목사님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도를 뉴스를 보자마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픈도어가 지면을 통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사라 자매

저는 북한개발소식을 통해서 북한과 북한선교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 점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북한개발소식을 통해 북한에 대해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북한과 북한선교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좌담회에서 귀한 의견을 나누어주시신 (왼쪽부터) 유관지 목사, 오성훈 목사, 임사라 자매, 백명숙 박사>

북한,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5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 쓰기'하면서 무력 도발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한미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하는 등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540km로, ICBM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3월 시험 발사한 적이 있는 신형 ICBM인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은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SRBM인 KN-23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돼 군에선 실패로 추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다. 이 같은 북한의 ICBM·SRBM '섞어 쓰기'에 한미군 당국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우선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 실제 발사에 대비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30여대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에 전개해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에이태컴스) 1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한국일보 5/25) 🐟

북한 코로나 의심환자 누적 300만 명 돌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누적 환자가 5월 말 기준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1만5천970여 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25일까지 누적된 발열 환자는 총 306만4천880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68명이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관련 발열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뒤 매일 20만~30만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했으나 지난 나흘간 18만6천90여명(21일)→16만7천650여명(22일)→13만4천510여명(23일)→11만5천970여명(24일)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류영철은 전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지역별 전파 상황을 설명했다. 보도에 류영철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는 4월 말부터 발열자가 급증해 지난 15일 고점을 찍고 두

릿하게 감소한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발열자 수가 최고에 이르렀다가 이후 추세가 꺾였다.

벌방(논밭이 많은 지역)에서는 4월 말부터 발열자가 늘다가 5월 19일 최고를 기록한 뒤 줄어들었다. 해안가는 5월 20일, 산간지대는 5월 21일에 각각 고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였다.

류영철은 "전염병 전파 상황이 전반적 지역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모든 비상방역 단위들과 치료예방 기관들에서는 마지막 한 명의 유열자가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자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중앙급 병원들이 신속협치의 진단조를 꾸려 24시간 원격진료를 가동해 지방병원에 의료자문을 하고 있으며, 국방성 지휘소는 평양 시내 모든 약국에 약품 사용법과 민간요법을 담은 자료 3만2천500여부를 배포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지역별 봉쇄와 단위별 격폐 조치는 비록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많은 애로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참고: 연합뉴스, 5/25) 🐟

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한미 양국 정상은 21일 첫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다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양측은 이어 빠른 시일 내 2011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 간 2+2 형태의 확장역

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미연합훈련 확대도 논의되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 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 동아일보, 5/21) ☞

1. 오픈도어선교회의 월간북한개발소식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2006년 5월 북한선교 후원자들에게 북한뉴스와 기도제목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북한개발소식이 이번호로 200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북한개발소식은 매월 북한 선교 관련 주제를 정하여 선교회 연구실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개발소식이 성도들에게 북한선교를 위한 정보와 기도제목을 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북한의 누적 발열자는 264만 6,730여명으로 이 중 206만7,270여명은 완쾌했고, 57만9,390여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사망자는 67명으로 북한은 치명률이 0.003%로 비교적 낮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검사 장비가 부족해 ‘확진자’ 대신 ‘유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환자 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경우 주민들의 공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심리적 방역 측면에서 사망자 수를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확진자나 사망자 수는 북한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5월은 모내기 집단동원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방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해주시요.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코로나 봉쇄와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등과 연계되어 더욱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 내에 숨은 성도들이 적발되어 순교자가 발생하고 남은 가족들이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과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 사태가 해결되고 선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 속에서 최근까지 상하이 봉쇄가 강도높게 진행되었고 베이징 등도 새롭게 봉쇄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봉쇄가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언제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여 추가적인 봉쇄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봉쇄 지역 중에는 북한선교에 중요한 현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봉쇄상황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가운데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북한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은 실질적 대북 확장역지력 강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질서 구축을 골자로 한 회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한미관계 강화 움직임에 대해 중국 측의 불편한 입장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국제관계 변화가 선교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6월에는 북한선교와 통일선교를 위한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6월 6일 현충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주강사로 분단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2022 주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을 일산광림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같은날 충남 공주시 소재 '에터미 아웃'에서 국내정착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가 열리고, 6월 25일에는 6·25전쟁 정전 69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북음통일을 염원하며, 청년세대를 통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6·25 북음통일 페스티벌'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귀한 행사들에 참석해야 할 성도들이 꼭 참석하고 모두에게 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북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북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현장으로부터 라디오 선교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북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5월 31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북음사역 참여
-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문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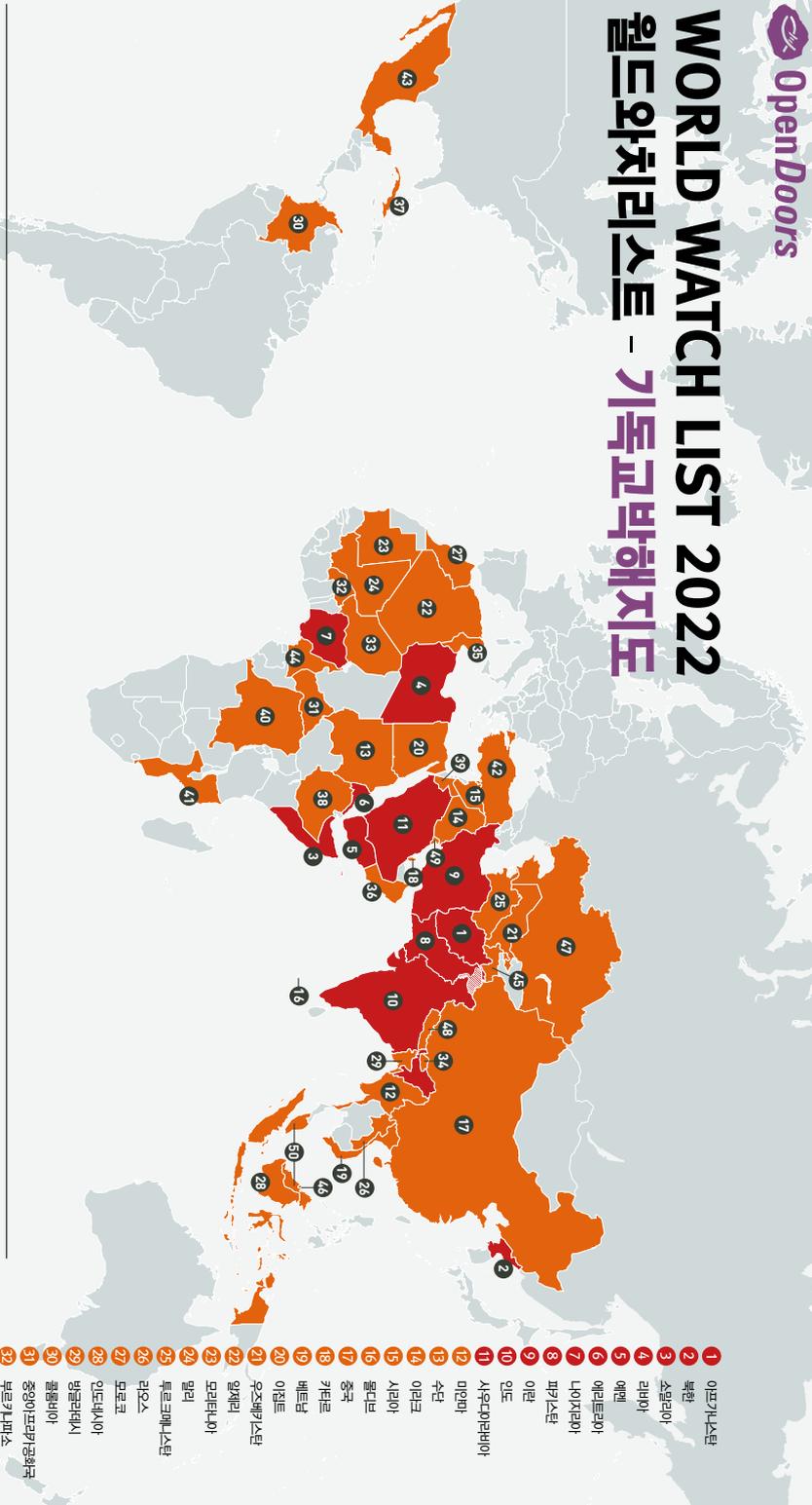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WORLD WATCH LIST 2022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ABOUT THE WORLD WATCH LIST...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프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각 국가별 박해지수는 폭력적 및 법적 정도를 분석한 하나의 포인트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는 삶의 5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 폭력
- 개인영역
- 가정영역
- 공동체영역
- 국가영역
- 교회영역

각 영역별 최고 지수는 16.7이며, 지역별 지수의 총합은 100점입니다. 각 국가의 순위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점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박해수준

- **높음**
41-60 points
- **매우높음**
61-80 points
- **극심함**
81-100 points

순위 내 모든 국가들은 매우높음이나 극심함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위	국가	총점
1	이르라크	98
2	북한	96
3	소말리아	91
4	레바논	91
5	에티오피아	88
6	에리트리아	88
7	나이지리아	87
8	파키스탄	87
9	이란	85
10	인도	82
11	시리아	81
12	미얀마	79
13	수단	79
14	아르헨티나	78
15	시리아	78
16	헝가리	77
17	중국	76
18	카타르	74
19	베트남	71
20	이집트	71
21	우즈베키스탄	71
22	엘살바도르	71
23	모리타니아	70
24	말리	70
25	투르크메니스탄	69
26	리비아	69
27	모로코	69
28	인도네시아	68
29	방글라데시	68
30	콜롬비아	68
31	중화인민공화국	68
32	부룬디	68
33	나이지리아	68
34	부탄	67
35	튀니지	66
36	요르단	66
37	쿠웨이트	66
38	에티오피아	66
39	오스트리아	66
40	홍콩(중국영유권(DRC))	66
41	모잠비크	65
42	타이	65
43	멕시코	65
44	카메룬	65
45	태국	65
46	브루나이	64
47	카자흐스탄	64
48	나팔	64
49	쿠웨이트	64
50	말레이시아	63